|  |
| --- |
| <녹크의 성모> |
| (아일랜드)  1. 발현  성모 마리아의 많은 발현 가운데, 아일랜드 녹크의 발현은 매우 특이하다. 왜냐하면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이 발현은 가톨릭 해방령(1829년)이 반포된 지 꼭 50년 후에 있었는데, 그 이후 가톨릭교회는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.  1879년 8월 21일은 성모 몽소승천 8부 전야였다. 이날 저녁 7시 30분경에 마리아는 마요 마을(지금은 녹크라고 부른다)성당 남쪽박공벽에서 발현하셨다. 이 발현은 꼭 두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, 15명이 목격하였다. 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초저녁이었으나, 발현하신 모습은 전혀 젖지 않으신 채로 나타나셨던 것이다.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:  복되신 동정녀는 흰 옷을 입고 계셨고, 크고 찬란한 화관을 목에 두루셨다. 그녀의 손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들어 올려 져 있었고,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. 그녀 오른편에는 마리아를 향하여 머리를 기댄 성 요셉이 있었고, 왼편에는 복음사가 성 요한이 서 있었는데, 그는 주교복장을 하고서 왼손에는 책을 잡고 오른손은 마치 설교할 때처럼 치켜들고 있었다. 성 요한 왼편에 제대가 있었고, 그 위에는 십자가 하나와 8주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양한 마리가 있었다. 제대 뒤편 이 되는 박공벽은 온통 빛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.  2. 메시지  비록 성모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이 발현의 공통된 해석은 아일랜드 백성들이 그들의 '길'을 고수하고 확고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은 것이다. 마리아는 개인적인 성성을 구체화시키셨다: 성 요한은 교회의 옹호자이고 전파자이다. 성 요셉은 자부적 사랑을, 십자가는 희생을, 제대는 가톨릭 생활에 필수적인 힘의 원천임을 계시하였다.  발현의 첫 번째 교훈은 미사성제이다. 발현의 분위기가 이 점을 지적하는 듯했다. 예컨데 희생될 어린 양이 있는 제대, 성모님의 몸짓, 주교복을 입은 성 요한의 모습, 그리고 성 요셉의 경건한 태도가 마치 미사 분위기를 말하는 듯하였다.  그러나 이 발현은 미사와 관련되는 또다른 큰 진리를 가리키는 듯 하다 고 한다. 즉 마리아의 중재가 필요하며, 그 중재의 독특한 성격을 강조하는 듯 하였다는 것이다. 그것은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과 대관 때문으로 본다.  미첼 오케롤은 이렇게 말한다: '그러므로 녹크의 발현에서 우리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녀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며 당신의 의식이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도록 하라 시는 초대장으로 보아야 한다.'  3. 성지  녹크는 지금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고, 옛 성당 외에 또다른 대성당을 지었다.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며, 이를 정밀히 검사하는 보건국도 있다.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놀라운 영적 치유에 대한 경험이다. 요한바오로 2세는 1979년 9월 30일에 이 성지를 방문하여 성모 발현 백주년을 기념하셨다.  '1879년 8월 21일, 그 은총의 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이 부자유스런 수많은 환자들과 고난받는 사람들이 천주의 모친께서 우리를 천주 성자께 인도해 주시리라는 신뢰 때문에 치유되었고, 믿음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.' |